



광주 양3동 청춘발산마을의 '양학선 선수 기념관'.



광주 양림동 '펭귄마을'에 설치된 펭귄 조형물.

광주·전남 테마마을



광주 각화동 시화문화마을내 '광주문학관' 내부.



양은냄비와 '엄마를 기다리는 펭귄마을 아이들'.

바위에 앉아 詩 읽고... '무지개 108계단' 시간여행

■ 광주

▲ '광주문학관' 품은 각화동 시화(詩畵)문화마을 시화(詩畵)를 테마로 한 광주시 북구 각화동 '시화마을'은 최근 문학을 품에 안았다. 지난 2023년 9월 광주문학의 산실인 광주문학관이 개관했다. 이곳은 시민과 함께 하는 전시·교육·창작·교류의 복합 문화공간 역할을 톡톡히 한다.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인 광주문학관 1층은 '광주시 북구 시화문화마을 커뮤니티센터'로 활용되고 있다. 화·토요일마다 어린이놀이터, 실버체조댄스, 이야기할머니(할머니가 들려주는 구연동화) 등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시가 흐르는 공간이라고 해서 '시(詩)섬'이라고 부르려고요. 관람객들이 바위에 앉아 시를 읽어보며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광주문학관 2층 기획전시실에 들어서면 미디어 아트 작품인 '시섬'이 첫눈에 들어온다. 이수복 '봄바'와 김영랑 '언덕에 바로 누워', 박용철 '이대로의 가라미는', 문병란 '희망가' 등 광주출신 시인들의 시가 작은 연못에 투영된다. 시구를 눈으로 읽고 있으면 파문이 일 듯 수면이 일렁이며 다른 시가 등장한다. 또한 '문학수다방'과 '문학사랑방', 창작실, 프로그램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기성작가와 작가 지망생을 위한 2~3층 창작실은 용아(龍兒) 박용철, 다형(茶亨) 김현승, 정소파, 서은(瑞恩) 문병란 시인의 이름을 붙였다.

3층 상설전시실은 '고려·조선시대의 문학'부터 근대, 해방정국, 한국전쟁기, 1960년대, 1970년대 등 시대 순으로 광주문학의 변화상을 보여준다. 그리고 광주문학을 대표하는 박용철, 김현승, 정소파, 문병란 시인을 비롯해 1980년 오월문학에 대해 소개한다. 광주문학관 인근 고기아래에는 문화동 주민자치위가 지난 2007년 10월 세운 '시화(詩畵)가 있는 문화마을' 표시석이 자리하고 있다. 한때 벽화마을로 유명했던 길 건너편 부지에는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사라져버렸고 대신 '브로크 시멘트 벽돌' 벽화 일부만 보존돼 있다.

문학관 뒤편에는 금붕어미술관이 자리하고 있다. 경관이 빼어난 각화동주지 주변에는 돌레길에 조성돼 있고, '짜리길'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무등산 자락 '무등길' 구간으로 이어진다.(광주시 북구 각화대로 93)

▲ 청년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청춘발산마을' '청춘'과 '발산'의 조합. 서구 양3동 발산마을은 청춘의 다이나믹한 에너지가 발산되는 듯한 느낌을 안겨준다. 서민들의 애환이 서려있는 쇠락하던 달동네가 젊은 예술가들이 참여한 도시재생 사업에 따라 주목받는 테마마을로 변모했다. 무지개 빛깔로 채색된 '108계단'을 오르며 발산마을로 시간여행을 떠난다. 우선 이곳에서는 두 명의 '스타'를 벽

각화동 '시화마을' 광주문학관 전시·교육·창작·교류의 공간 쇠락한 달동네에 예술의 향기 양3동 발산마을 '청춘 발산' 양림동 펭귄마을 '공예특화거리' 영화 '1987' 배경 목포 시화골목 비탈진 골목길 따라 벽화 감상

화로 만날 수 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체조도마 종목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체조선수 양학선과 아이돌그룹 BTS(방탄소년단) 제이홉이다. 2021년 2월 광주 출신 제이홉의 생일을 기념해 중국 팬클럽 후원으로 조성된 제이홉 벽화는 'HOPE 1994 WORLD 0218' 문구를 새겼다. 같은 해 11월 설치된 양학선 벽화에 적힌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는 캘리그라피 문구는 여행자에게 울림을 안겨 준다.

오랜만에 찾은 발산마을에 새로운 시설이 조성됐다. '양학선 선수 기념관'과 '별빛발산마을 커뮤니티 센터'이다. 기념관 1층은 '인송 구영웅 카메라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작가가 사용하거나 컬렉션한 다양한 카메라들이 전시돼 있다. 1930년대 목재 사진기를 비롯해 필름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등 다양하다. 발산마을은 양학선 선수가 7살 무렵부터 살았던 곳이다. 기념공간은 양학선 선수의 유년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체조선수로 성장하는 과정을 꼼꼼하게 보여준다.

좁디좁지만 정겨운 느낌을 안겨주는 비탈진 마을 골목길을 거닐다보면 문득 '발산'을 지키는 영웅들 2'(작가 백상옥) 등 발산주민들의 삶이 녹아있는 다양한 예술작품과 마주친다. 별마루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발산마을 슬레이트·시멘트 지붕과 광주 전 건너편 고층아파트 풍경이 대조적이다. '청춘발산협동조합'(bal-san.com)은 '행복줍기 프로젝트' 등 주민과 함께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 근대역사와 예술의 향기... '양림동 근대역사 문화마을·펭귄마을'

양림동은 광주를 찾은 여행자들이 첫 손에 꼽는 '핫 플레이스'이다. 구한말 선교사들이 자리를 잡았던 근대기 기독교·의료 관련 흔적은 물론 예술 공간과 맛집, 카페 등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아무런 사전 정보없이 마을을 어슬렁 거리다보면 뜻



광주 양림동을 대표하는 펭귄마을 골목길.

밖의 공간과 마주칠 수 있는 즐거움을 안겨준다.

근대초기 전통상류 한옥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이장우가옥'(광주시 민속문화재) 안채는 현재 수리중이다. 안채는 1899년, 문간채는 1935년에 지어졌고 사랑채·행랑채·곳간채는 1959년 이후 현재 모습을 갖췄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시작된 보수공사는 이달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양림동에는 '양림 미술관'과 '한화원 미술관', '이강하 미술관', '포도나무 갤러리', '이이남 스튜디오',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등 예술 공간이 자리하고 있다. '한화원 미술관' 내에는 작가의 작품세계 변천상을 보여주는 여러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작가가 20년 동안 사용한 팔레트를 비롯해 1980~90년대 대중미술 수채화 작품 '귀로'와 '선운사 동백'(1995년), '스며든다, 녹아든다, 나는 어디에...' (2015년), '교회당이 있는 마을'(2022년) 작가 등 작품마다 강렬한 인상을 풍긴다.

또한 양림동에는 '펭귄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입구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

해자인 이옥선 할머니의 16살과 92살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골목길 내부는 재치 있는 전라도 사투리와 정크 아트작품들로 꾸며져 있다. 지난 2020년 6월 오픈한 펭귄마을 '공예특화거리' 또한 여행자들의 눈길을 끈다. 목공예, 도자기, 디자인 아트, 주얼리, 켈트, 도자기공예 등 다양하다. 작가들의 작업 현장을 직접 볼 수 있음은 물론 직접 체험하거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 전남

▲ 목포 서산동 시화(詩畵)골목

지난 2017년 영화 '1987'(감독 장준환)이 개봉되며 목포 서산동이 화제에 올랐다. 영화에서 서울 어디쯤 있는 동네슈퍼로 등장하는 '연희네 슈퍼'가 서산동에서 촬영됐기 때문이었다. 촬영지인 서산동은 '시화(詩畵)골목'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바닷가 마을이다. 영화 개봉이후 '연희네 슈퍼'는 목포 여행자들의 포토 존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 운영하는 슈퍼가 아니라 1980년대 구멍가게 모습

을 재연해 놓았다.

비탈진 골목길을 따라 '바보마당'(바다가 보이는 마당)으로 향한다. 골목길은 크게 세 갈래로 이뤄져 있다. 계단을 오르면서 담벼락에 그려진 아기자기한 벽화들을 감상하는 재미가 있다. 또한 벽면에는 주민들의 시와 그림도 게시돼 있다. 그중 85세 할머니의 인생살이가 고스란히 배어있는 시 <인자 성가실 것이 없당개>가 마음에 와 닿는다.

"젊어서 남편 가보고 고생 원 없이 했제/ 애기를 낳아놓고 죽으면 먹고 입히고 갈질 사람이 없은게/ 쌀이고 땀기면서 풀고 살았어/ 죽도록 고생을 해서 골병이 들어 삭신이 아픈디/ 애기들이 다 잘 되어서 인자는 나 혼자 살아도 성가실 것이 없제."

가파른 골목길을 험악 거리며 오르다 문득 뒤를 돌아다보면 바다가 내려다보인다. 바닷가 마을 골목길에 마을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스며있다. 여전히 주민들의 인상은 바다와 함께 이어지고 있다.

/글=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사진=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문학관' 상설전시실내 '광주를 대표하는 문인들' 코너.



양3동 청춘발산마을의 BTS 제이홉 벽화.



시화(詩畵)를 테마로 한 광주 각화동 '시화마을' 벽화.